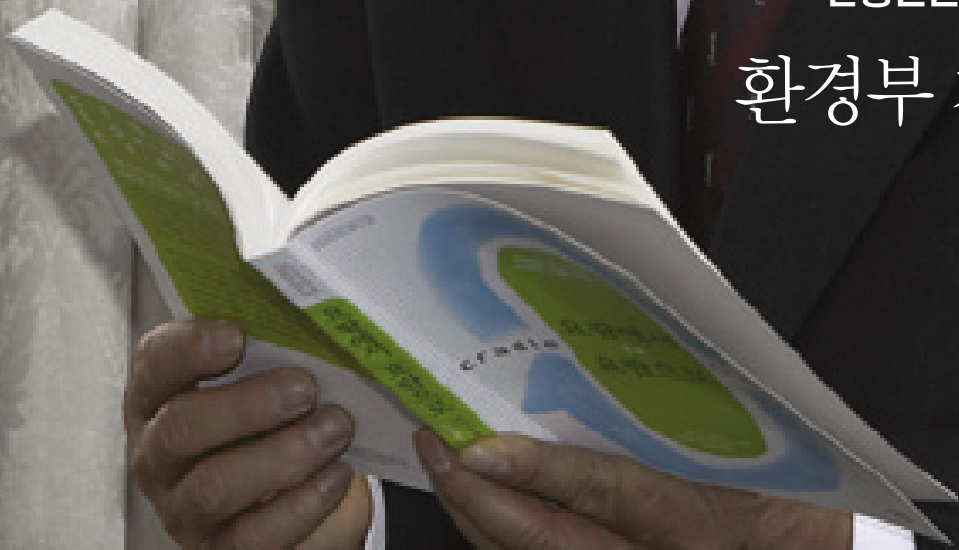


환경전문 행정가,
환경부 차관

곽결근호



상하수도 서비스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중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도 만족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는 상하수도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여 업계와 정부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건교부 시절부터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기술인으로서 상하수도 국장 등 정부 주요 직책을 거친 우리나라 환경행정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재임 중에 반드시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는 제반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화와 타협, 참여에 의한 성공적 모델이 되는 좋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4대강 수질개선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먹는물 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기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의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특히 심각한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6조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공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공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기업, 자동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까지 상하수도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해 온 중점과제 및 업무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상하수도 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상수도의 양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정수능력 확보 및 하수처리시설·관거개선 등을 통한 상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물수요관리를 통한 물절약 대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이 업무가 건설부에서 우리부로 이관된 이후 체계적이고 대폭적인 투자에 따라 '95년에 82.9%이던 상수도 보급률이 '02년에는 88.7%로 높아졌으며, 하수도 보급률도 '95년 45.4%에서 '02년에는 75.8%로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97.9%에 달하는 등 상수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보급 및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하여 '99년 대비 5억8천5백만 톤의 물을 절약하여 당시 1일 1인당 급수량 388ℓ를 362ℓ('02년)로 줄이는 등 획기적인 물절약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Profile

환경부 박결호 차관

- * 46년생
- * 영남대 토목공학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 한양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 * 기술사(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토목품질시험 등 4개분야)
- * 前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수질보전국장, 기획관리실장



2004년도 환경부의 상하수도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참여정부(參與政府) 출범 2년째를 맞는 금년에는 도시·농촌 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급수율이 낮고 상습적인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과 섬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전국 상수도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도서지역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33개 사업에 대해 1,380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요 상수원 수질을 2급수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하수도 보급이 미약한 연안지역과 먼지역에 하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726개소에 1조5,128억원을 투자하고 이중 61개소를 완공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78%까지 높일 것입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조1,08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5,301km를 정비하는 등 하수관거 보급률도 73%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하수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육성대책 추진 및 상하수도 자동화 통합관리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대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수질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표하고,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15개 항목→19개 항목)나가도록 하며, 병원성 원생동물 관리방안 및 소독부산물에 대한 규제기준을 전국정수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돌발 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생물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도 처리한 물을 공공수역에 방류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고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협회 이사들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서 1인당 물소비가 OECD국가 중 높은 국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아직도 무절제한 물소비 풍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절약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부터 추진해 온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규모 댐을 건설할 만한 적지를 찾기 힘들고 생태계 피해를 우려한 지역사회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부에서는 2000년 3월부터 『물절약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가정에 절수기기를 보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물절약 생활습관이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9년부터 '02년까지 4억5천만 톤의 물을 절수하였으며 국민 1인당 하루 물공급량도 '97년에 409ℓ이던 것이 '02년에는 362ℓ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절약 시책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수요관리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토록 하고 물절약기기 사용을 확대하며 중수도 확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물을 아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 한마당인 2003 WATER KOREA 행사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사에 직접 참관하셨는데 행사를 둘러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행사 첫날에 국제상하수도전시회를 둘러 봤는데 선진 기술과 첨단 기자재가 많이 선보이고 특별전시관으로 만든 하수관거정비 특별관도 알찬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기자재전시회 이외에 학술세미나, 공무원연찬회, 물사진 전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현장견학, 환경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잘 진행되어 상하수도인들의 화합의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데 대해 한국상수도협



회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WATER KOREA 행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기자재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 협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표준제정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국내 상하수도 산업규모는 연간 8조원에 달할 만큼 상하수도 산업이 환경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니다.

특히, 상하수도 산업에 있어서 기자재의 경쟁력은 상하수도의 서비스 질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적인 기자재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상하수도 협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선 일부 하수관을 대상으로 인증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인증범위를 수도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차관님께서서는 한국 상하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 창립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나, 이것만은 협회가 필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차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협회에서는 상하수도 분야의 정책수립 지원기능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기자재 검·인증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수장 운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협회가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기술자격 관리기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련 국내·외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하수도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선진국가와 우수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여 업계와 정부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3 WATER KOREA 행사장에서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깨끗한 물 공급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해 애쓰는 전국의 상하수도 종사자들에게 당부 및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 서비스가 대국민 공공서비스 중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임을 다시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도 만족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행정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책을 결정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인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데 대해 노고를 치하드리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